



육상 김국영, 강다솔



배드민턴 조승현(우), 김예리(좌)



핸드볼 조대부고



광주시체육회(공도) 시상

광주체육 '비상'...제103회 전국체전 기대

육상·농구·핸드볼·배드민턴 등 전국대회서 메달 낭보

이상동 회장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선수단 관리에 만전"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이상동)가 최근 육상,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공도 등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한 광주 소속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전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제103회 전국체전이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표선수들이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광주체육에 남다른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육상팀이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다관왕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과 강다솔이 남녀 100m

최강자 이름값을 다했다. 6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실업단체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 출전한 김국영은 10초1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 100m 한국 신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은 중반까지 주춤했으나 막판 스피드로 김태효(파주시청)를 따돌리고 역전에 성공했다.

여자부 결선에서는 강다솔이 11초8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다솔은 레이스 초반부터 독주하며 여유 있게 우승했다.

여자일반부 400m 결승에 출전한 한정미는 56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400mR에서도 광주시청 여자 육상팀이 46초87의 기록으

로 은메달을 따내며 팀에 메달을 보냈다.

6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대학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광주대가 단국대에 72-74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올 시즌 정규리그 1위 팀인 부산대를 꺾고 올라와 사기가 충만했다.

광주대는 경기 내내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단국대를 압박했다. 광주대는 후반 마지막 공격에서 파울로 자유투를 얻어냈지만 모두 실패하며 단국대에 승리를 내줬다. 광주대는 다음 달 10일 전국체전에서 울산대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조대부고 핸드볼팀도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6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결승에서 경북 선산고에 25-27로 아쉽게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7인제 경기에서 조대부고는 7명의 인원으로 대회에 참가해 교체

없이 전·후반을 소화하며 이목을 끌었다.

배드민턴에서도 값진 성과가 나왔다. 5일 경남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고등부 혼성복식에 출전한 조승현(전대사대부고)과 김예리(광주체고) 조가 서울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6일 복식 결승에서는 이은희, 이지원(이상 광주체고) 조가 영덕고와 맞붙어 1-2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은희는 단식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일 대전 대덕장에서 열린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공도대회에서 광주 일반부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수 등 광주 선수단은 63등을 쏘며 공동 2위 경남(56등)과 충남(56등)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개인전에서는 김연수(광주시체육회)가 14등을 쏘며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슬비기자



이경훈



김시우

프레지던트컵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세리머니는 배치기?

이경훈·김시우 추천 선수...임성재·김주형 출전
이경훈 "팀에 승점 가져다주고 세리머니 할 것"
김시우 "주행이 자꾸 배치기를 하자고 했다"

이경훈(31)과 김시우(27)가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에 단장 추천 선수로 출전한다. 임성재(24)와 김주형(20)이 이미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호흡을 과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경훈은 7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단장 추천 선수로 출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첫 출전이라 설레고 걱정도 되지만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시간이 기다려진다. 단장 선발로 출전하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경훈은 또 "한국 선수들이 팀에 많아져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모두가 실력 있는 선수라 누구와 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다"며 "어떤 선수와 페어가 돼도 재미있게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경훈은 "김시우 프로그램 하면 샷이나 아이언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임성재 프로나 요즘 잘하고 있는 김주형 프로도 다들 뭐하나 못하는 것이 없다"며 "한국 선수가 같은 팀이 된다면 재미있게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리머니를 꼭 하고 싶다. 팀에 승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시우는 세리머니에 대해 "다 같이 보였을 때 주행이 자꾸 배치기를 하자고 했다"며 "어떻게 파트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재미있게 파이팅 있게 하고 싶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우는 또 "한국 선수가 4명이나 들어가서 역대 최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그간) 프레지던트컵에 나갈 때는 나 혼자 아시아인이었다. 조금은 외로웠다. 이제는 한국인이 많아서 같이 팀에 녹아들 수 있고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시우는 그러면서 "한국 선수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연습라운드 많이 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한 팀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레버 이멜만 단장은 김시우에 대해 "김시우는 어린 나이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21세의 나이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 뉴저지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라커룸에서 선수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평했다.

이멜만 단장은 이경훈에 대해 "이경훈은 이미 검증된 챔피언이고 오랫동안 여러 투어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를 해온 선수이다"며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와 함께 프레지던트컵 역사상 가장 많은 대한민국 선수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골프와 골프팬들에게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선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팀과 인터내셔널 팀(유럽 제외)이 대결하는 프레지던트컵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된다.

12명인 인터내셔널 팀은 대한민국(4명), 일본(1명), 호주(2명), 캐나다(2명), 남아프리카공화국(1명), 칠레(1명), 콜롬비아(1명) 등 7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구성됐다. 한국인 선수 4명이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화순제일중학교 선수단이 단체전 3위를 기뻐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지은, 김예진, 오성은, 유승연, 김세진, 한서연 선수



화순중학교 선수단이 단식과 복식에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도혜길(화순중 배드민턴부 코치), 장희오, 이지호, 정다환 선수



화순고등학교 선수단이 단체전과 개인전 입상을 기뻐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안원희, 연서연, 김은진, 김명현(화순고 배드민턴부 코치), 김명현, 김미주, 김미소 선수



사진은 전남기술고등학교 선수단이 입상을 기뻐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화순군, 중·고 배드민턴 전국대회서 '메달 14개' 휩쓸어

배드민턴 메카 화순 위상 확인...화순고 연서연-안원희, 복식 금메달

화순 중·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2022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14개에 달하는 메달을 획득하며 '배드민턴 메카 화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화순고등학교의 연서연-안원희 선수가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화순 4개 중·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모두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경남 밀양시 밀양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남녀 중·고등부 단체전과 개인전, 학년별 단식·복식·혼합복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화순 중·고교 선수들은 중등부에서 6개, 고등부에서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전보는 화순제일중학교(코치 서진아)가 가장 먼저 올렸다. 화순제일중은 지난달 29일 여자중등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화순제일중은 1학년 단식에서 유승연 선수가 은메달을, 3학년 단식에서 김지은

선수가 동메달을, 3학년 복식에서 김지은-김예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중학교(코치 도혜길)는 2학년 단식에서 정다환 선수가 동메달을, 3학년 복식에서 이지호-장희오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다.

화순고등학교(코치 김명현)는 지난 2일 단체전 3위에 오른 후 승전보를 이어갔다.

5일에는 연서연 선수가 1학년 단식에서 은메달, 화순고 선수끼리 맞붙은 1학년 복식 결승전에서 연서연-안원희 선수가 금메달, 김미주-김미소 선수가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전남기술고학교(코치 정권) 유현빈 선수는 1

서요섭, KPGA 사상 최초 3주 연속 우승 정조준

서요섭(26)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사상 최초로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서요섭은 8일부터 일본 나라현 고마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제38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에 출전한다.

국내 단일스폰서 프로골프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신한동해오픈은 지난 2019년 대회 국제화를 위해 코리안투어(KPGA), 아시안투어, 일본프로투어(JGTO) 3개 투어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요섭은 대회 2연패와 함께 KPGA 코리안투어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통산 네 번째 신한동해오픈 2연패에 도전한다. 또한 사상 최초 KPGA 코리안투어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달 28일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한 서요섭은 지난 4일 LX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KPGA 코리안투어 통산 5번째 우승을 이어가 투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했다.

뉴스

NH농협은행 여자바둑리그 순천만국가정원팀 정규리그 준우승

순천만국가정원팀, 여자바둑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성공



지난 1일에 '2022 NH농협은행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통합라운드)가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일제히 열렸다.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순천만국가정원팀이 섬섬여수를 2-1로 꺾고 준우승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상현 감독을 새 사령탑

에 영입한 순천만국가정원팀은 1지명자인 오유진 9단을 제외하고 선수도 전원 교체하여 팀 분위기를 쇄신해 개막전부터 5라운드까지 파죽의 5연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순천만국가정원팀은 주장 오유진이 6승 1패로 보령머드의 최정 9단과 다승 공동 1위로 나

섰으나, 개인 다승 순위에서는 최정(단보령머드)과 조승아 5단(서귀포철심리)이 나란히 12승 2패를 기록하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포스트시즌 경기일정은 준플레이오프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플레이오프는 17일부터 19일까지, 챔피언결정전은 21일부터 23일까지로, 경기시간은 오후 6시, 바둑TV에서 생중계되며, 경기장소는 바둑TV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정규리그 1~4위 팀이 출전하는 포스트시즌은 스프래더 방식으로 14일 삼척 해상케이블카와 부안 새만금캠버리의 준플레이오프 경기로 시작된다.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순천만국가정원팀과 17일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결정전 진출권을 두고 대결을 펼치고, 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서귀포철심리와 3번기를 벌여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최종 우승팀에는 우승상금 5천500만원, 준우승 상금 3천500만원, 3위 2천500만원, 4위 1천500만원이다.

순천=김승호기자